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4월 26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

마태복음 5:8 / 새찬송가 288 (통일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실까요?

악한 자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귀신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므로 두려워 떱니다(막1:21-26).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들,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욥19:25,26)

2.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자들은 죽게 됩니다(출33:20).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체험한다'는 말입니다(눅3:4-6).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롬10:17)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직접적 체험을 말합니다. 욥의 믿음은 들음에서 보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욥42:5).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 즉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요11:39,40).

3.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말씀을 듣고 갖게 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마5:8).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서 그 마음에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절대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 고백했습니다(시51:1-3).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딤전1:3-5). 즉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자기 밑바닥까지 바라보면서 자기 죄과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내 자신을 알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 자기 양심(청결한 마음)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언장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과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딤후1:3-5). 즉 바울과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즉 청결한 양심으로 갖게 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 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비추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